

경북도, 웰니스관광지 24곳으로 확대… “치유관광 경쟁력 ↑”

올해 골굴사 등 10곳 추가 선정
컨설팅 등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웰니스관광 체험주간도 운영

경북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의 특색이 담긴 웰니스관광지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 5곳을 시작으로 2023년 3곳, 2024년 6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골굴사(경주) ▲토함산자연휴양림(경주) ▲코오롱호텔(경주) ▲국립김천치유의숲(김천) ▲신라 불교조전지(구미) ▲국립산림치유원(영주)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상주) ▲한바이소노(청송) ▲조이풀빌리지(영덕) ▲문수산 산림복지단지(봉화) 등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내 웰니스관광지는 총 24곳으로 확대됐다.

풍부한 생태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



경북도청.

문화를 품은 경북은 힐링과 명상, 자연 치유, 스테이 등 다양한 테마에 맞춘 웰니스관광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관광객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맞춤형 웰니스관광지를 발굴·육성해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웰니스관광지에는 단순한 장소 소개를 넘어, 고품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 전 여정을 고려한 전방위적 지

원이 추진된다. 웰니스관광 전문가 및 컨설팅단이 참여해 맞춤형 진단과 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기반한 홍보, 마케팅, 상품 판촉 등의 전략도 함께 전개될 예정이다. 또한 실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도 유도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올해부터 여행사를 대상으로 웰니스관광상품 운영 경

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웰니스관광지와 인기 관광지를 결합한 묶음 관광상품(‘경북e누리’)을 최대 50% 할인해 제공하는 ‘웰니스관광 체험주간’도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 기반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제정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유와 관광이 결합된 ‘치유관광’이 향후 국가 관광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산림, 해양, 역사문화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관광의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경북만의 색깔을 담은 웰니스관광지를 적극 육성해 세계인이 찾는 치유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산후조리비 첫째아부터 지원

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인천시, 로봇 플러그쉽 사업 선정

총 19억 사업비 확보

인천시가 물류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서 실증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 로봇 플러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 예산을 투입해 인천 로봇랜드 내에 물류로봇 실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실증거점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건물 내부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공간을 이동하고, 외부 도로에서는 건물 간 구간을 주행하며 물류 배송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는 로봇타워

와 연구개발(R&D)센터, 그리고 외부 연결부지 등을 중심으로 물류로봇 특화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 내 테스트베드와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실제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에서 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는 사업을 통해 로봇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기술을 실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은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센터가 맡으며, 시스템 도입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주)빅웨이브로보틱스, (주)로보웍스, (주)자이드테크 등 국내 로봇 전문기업들이 참여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부산항만공사, 24개 부서 체제로 조직개편

물류환경 변화·새 정부 정책 대응

부산항만공사는 내달 1일자로 23개 부서 체제에서 24개 부서 체제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와 새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략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중심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기관장 경영방침과 조직 진단, 내부 의견 수렴, 노조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9일 항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항을 글로벌 친환경 거점항만이자 북극항로의 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대 분야에 대한 대응조직을 정비했다.

먼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글로벌사업단 산하에 북극항로팀을 신설하고 국제물류지원부를 국제물류지원실로 승격했다. 이는 북극항로



부산항만공사.

개척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친환경 물류 기조에 따라 친환경항만부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 조직인 에너지자립사업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기반 벅커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자립 항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첫 여성 비서실장 임명

전남도 최초로 첫 여성 비서실장이 탄생했다.

전남도는 27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정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Ok 지금은 전남시대’의 본격 추진과 민선 8기 후반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2~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조치로 2급 승진과 전보 2명, 국장급 17명, 준국장급과 과장급 43명 등 모두 62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희경(53) 인구정책과장이 전남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신임 박 실장은 고층 출신으로, 전남도 문화정책팀장과 홍보기획팀장을 거쳐 인구정책과장으로 근무해왔고, 전국적으로 주목 받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 등 정책 역량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 대형산불로 사과 재배면적 줄어

감자, 저온·가격하락에 재배면적 ↓

올해 경북 대형산불로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격이 하락하고, 봄철 저온피해를 입은 감자 재배면적도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 조사(잠정)’에 따르면, 올해 맥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경북 산불 피해로 재배지가 일부 불타면서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7ha(0.2%) 감소한 3만3246ha

로 집계됐다. 일부 과수는 윗부분이 불에 타면서 성과수(열매를 수확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수목)가 미과수(열매를 맺지 않은 식재 초기 단계의 수목)로 전환됐다.

배 재배면적은 9361ha로, 전년보다 60ha(0.6%) 줄었다.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은 모두 3년 연속 감소세다.

봄감자는 지난해 가을 잦은 비가 왔고 파종시기인 올해 3~4월 저온 피해를 입으면서 재배면적이 줄었다. 감자 가격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4927ha로, 전년보다 594ha(3.8%) 감소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투입 안 해”

강기정 광주시장, 입장 강조

“착공 도입하는 데 동의 어려움”

강기정 광주시장이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 국비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국비와 매칭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 시장은 광주 서구 광주시장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솔직한 결론

이 없지만 지금 착공에 돌입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비 예산 367억 원을 받기 위해 시비를 태우는(집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 시장은 “약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확장 공사 후 6분 30초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정밀 검증을 해볼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고속도로를 확장하면 문흥지구에는 아주 좋은 2km 정도의 산책로가 사라지게 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이란, 중서부 영공 국제선 항로 다시 열어

/사진 뉴시스

▲일론 머스크, 트럼프 감세법안 비판 재개… “미친 짓이고 파피적”

▲日 관세각료 美상무와 추가 전화 협의… 美재무는 못 만나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사령관 살해했다 발표

▲펼 펼쳐 굶는 남부 유럽, 건강과 화재 경보… 스페인 세비야 ‘섭씨 42°’ 예보

▲푸틴, 국방비 감축 예고… 유럽 국방비 증액에는 ‘불만’